8강 김동리와 민족문학론

(1교시)
◆ 김동리와 민족문학론

※ 학습목표
김동리를 통해 민족문학론을 이해한다

▲ 순수 참여 논쟁과 민족문학론
남노당과 북노당이 해결해야할 가장 어려운 문제는 '민족성과 계급성의 모순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였다. 이에 대한 임화의 해결방법은 민족의 해방 없이는 계급의 해방이 없다는 논법이었다. 문제는 김동리의 '구경적(究竟的) 생의 형식'으로서의 민족문학론이었다. 임화와 김동리의 대립은 일제 말기인 1939년의 '순수 참여 논쟁'과 맞닿게 된다. 순수 참여 논쟁에서 순수파에 속하는 유진오는『조선문학이 나아갈 길』이라는 논문에서 조선 문학이 나아갈 길은 이데올로기를 버리고 시정의 리얼리즘으로 가는 것이라고 밝혔다. 유진오의 입장에서 김동리 같은 신인들은 대단히 불순하게 보였다. 왜냐하면 순수파는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하늘의 별을 따다가 떨어진 순수한 사람들인데, 그러한 순수파의 입장에서는 신세대들이 괴로움 없이 기교를 가지고 작품을 쓰는 자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참여파는 '어차피 문학을 하는 순간부터 괴로운 것'이라는 논리로 반박한다.

▲ 구경적(究竟的) 세계의 형식
김동리는 백철, 유진오, 이광수가 다 똑같다고 생각했다. 그는 근본적인 것은 구경적 세계의 형식이라고 생각했다. 모든 것은 일시적으로 지나가는 것이고 모든 것과 상관없는 근본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이 그의 입장이었다. 그는 그의 평론집 『문학과 인간』에서 인간은 과거에나 지금이나 늘 같다는 말을 하고 있다. 이렇듯 김동리는 근본적으로 동일한 인간을 다루는 것이 진짜 문학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아트앤스터디 www.artnstudy.com

8강 김동리와 민족문학론

(2교시)

◆ 민족문학론과 김동리

※ 학습목표
국가가 없는 공간에서의 민족문학론과 김동리를 이해한다

▲ 구경적 생의 형식으로서의 김동리의 소설
김동리는 불교의 공 개념을 깔고 소설을 쓴다. 따라서 그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사상이라는 것은 유행에 지나지 않는 것이었다. 그는 시대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닌 세계, 즉 근대문명이 들어오지 않은 세계를 그리는 것이 가장 본질적이고 본령적인 민족문학이라고 생각했다. 이를 정면으로 비판한 사람이 조연현이다. 조연현과 김동리는 원래 문학정통파였는데 1947년 남노당이 월북을 한 1948년 무렵부터 조연현이 김동리를 공격하기 시작한다. 종교는 이미 결정된 세계로 들어가 복종하는 것이고 문학은 종교가 아니라 사상이라는 것이 조연현의 생각이었다. 조연현은 자신의 평론집 『문학과 사상』에서도 문학은 이데올로기가 아니고 의견이나 사상이라고 밝히고 있다. 문학은 형상화 하는 과정, 즉 사상이라는 것이다. 이 공격에 김동리는 자신의 논문 『문학과 인간』을 수정하게 된다. 김동리는 구경적 생의 형식으로서 문학을 이야기함으로써 종교적 차원에서 문학을 바라본다는 비판을 받은 것이다.

▲ 국가가 없는 공간에서의 민족문학론
이 공간에서 나라를 설립하기 위해 어떤 모델을 선택하든 간에 국가가 없는 공간에서의 글쓰기의 지향성은 민족문학이 될 수밖에 없었다. 그것을 대표하는 자들 중 남노당 민족문화 이론의 대표로서 이원조가 있었다. 이원조는 이퇴계의 14대손으로 한문에 능하고, 모택동 사상으로 민족문화 이론을 전개해 나갔다. 그의 이론은 가장 수준이 높고 정확한 것으로 평가 된다.

아트앤스터디 www.artnstudy.com